

투데이 칼럼

북한 핵실험 재개 가능성

북한이 4년 전 폭발했던 풍계리 핵 실험장을 복구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한 달 정도면 복구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화성-17형이 아닌 15형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3월 16일 공중에서 폭발한 화성-17형의 파편이 평양 인근에 떨어지면서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급하게 15형을 발사한 뒤 17형으로 기만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고체 연료를 장착한 우주발사체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북한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2018년 5월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폭발했다. 당시 폭발 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핵 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최근 풍계리 핵 실험장의 복구 움직임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폭파한 경도를 복구하는 게 아니라 경도 측면에 새로운 통로를 뚫고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경도를 더 빨리 복구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미국 정부도 북한이 핵 실험 준비를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정복규
논설위원

정부는 수개월 내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미사일이나 미국 타격용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를 실험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난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어느 정도 핵 위력을 검증한 만큼 북한이 국제사회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핵실험 시기를 조절할 거란 관측도 있다.

북한이 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보이면서 우리 군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서해상에 설치된 발사대에서 시뮬레이션 화염을 내뿜으면서 로켓이 솟구쳐 올랐다.

우리 군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의 첫 시험발사 장면이다. 우리 군은 2025년부터는 실제 정찰위성을 쏘아 올려 북한 미사일

감시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더 강력한 공격 수단들을 개발하겠다고 밝히며 추가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ICBM 발사에 기여한 국방공업 부문 일꾼들과 기념사진도 찍었다. 과학자와 기술자 5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민들에게 공을 돌린 김 위원장은 추가 무기 개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력"이라면서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대외적 측면보다 대내적 상황을 더 고려해서 ICBM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발사한 실험 ICBM이 화성-17형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화성-15형의 개량형으로 최종 평가했다. 북한이 지

난 3월 16일 폭발되기 전의 화성-17형 영상과 화성-15형으로 추정되는 ICBM 발사 영상을 짜깁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화성-17형이 공중에서 폭발한지 불과 8일 만에 또 다시 같은 기종을 쏘아 올리는 것도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발사체는 화성-17형이 아닌 화성-15형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 당국이 발사 성공 가능성이 높은 화성-15형을 쏘고 17형으로 기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최고지도자가 주관하는 이른바 '1호 행사'를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화성-15형이나, 17형이나 논란이 되는 이유는 탄두 운반 능력의 차이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종류를 찾든 한반도 정세에 불안 요소가 되는 건 분명한 상황이다.

미국도 북한의 ICBM 기종에 대한 공식 판단은 유보한 채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증가하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한미 군 당국의 판단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 ICBM을 또 발사하느냐, 핵실험으로 바로 가느냐, 북한의 선택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설

우석대 올해 가장 찬란한 해

우석대가 지난 1년간 일반 재정 지원 대학과 LINC 3.0 사업 등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해 냈다. 학령인구 감소로 갈수록 문 닫는 대학이 이어지는 마당이다.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의 위기는 갈수록 심각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우석대가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 선정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한편 우석대는 최근 개교 43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전체 교직원과 학생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장기 근속 교직원에 대해 근속패 수여 등이 있었다.

서창훈 이사장은 "그동안 보여준 우석 가족 여러분의 의지와 행동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뜻깊은 개교기념일을 맞아 앞으로 다가올 우리 대학의 역사

를 더욱 새롭게 새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석대(又石大)는 1964년 고(故) 서정삼 박사가 학교법인 동산학원을 설립했고, 1970년 학교법인 우석학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시작되었다. 1979년 1월 전주우석여자대학이 설립되었다.

이후 1982년 12월 동산캠퍼스에서 삼례종합캠퍼스로 이전했다. 1983년 10월 일반대학원을 설치했고, 1986년 11월에는 교육대학원을 설치했다. 1995년 3월 지금의 우석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2014년 3월 충북 진천캠퍼스를 개교했으며 2020년 12월 교육부가 주관하는 원격 기반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대, 문화사회대, 과학기술대, 식품과학대, 체육과학대, 사범대, 약학대, 한의과대, 간호대, 교양대 등이 있다. 우석대가 앞으로도 올해처럼 찬란한 해로 만들어가기 바란다.

전주 옛 이야기 대회

전주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옛이야기와 어르신 이야기꾼을 발굴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주 옛 이야기 대회'가 열린다. 전주 서원산동 '용머리'의 경우 재미있는 설화가 전해온다.

'전주전서 자란 용이 천년을 기다리다 승천 했는지 세상에 하루가 모자랐더라. 어찌됐는지, 땅으로 피 떨어져서는 물부림차다가 한을 풀고 머리를 떨겠다잖아. 거가 지금 용머리 고개 자리여.'

이 이야기는 '용머리' 지명에 얽힌 설화를 전라도 사투리로 꾸민 것이다.

이처럼 전주에는 숨어있는 옛이야기가 많다. 전주시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동네 이야기, 설화, 그리고 최근 100년 이내 생활 이야기 등을 소재로 대회를 열기로 했다.

5월 13일까지 만 60세 이상 전 국민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제1회 전주 옛이야기 대회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야기는 5분 이내로 발표해야 한다.

대회는 5월 20일과 23일, 24일 3일간 전주시립도서관 뚝섬에서 진행되는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 30명을 가려낸다. 본선 진출자들은 6월 9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에 출전한다.

참여자 수가 50명 미만이면 곧바로 본선 대회가 열린다. 참여는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다. 전주독서대전 누리집에 인적 사항과 이야기 제목, 줄거리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수상자는 △대상 1명(50만원) △최우수상 1명(30만원) △우수상 3명(20만원) △장려상 15명(10만원) 등 총 20명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이야기꾼 교육 및 활동의 장 마련, 이야기 문집 제작 등이 제공된다.

'전주 옛 이야기 대회'는 전 통문화 전승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대회를 통해 삶의 정서와 지혜가 담긴 다양한 전주의 옛 이야기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탑건 매버릭' 시사회 참석한 윌리엄 왕세손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오른쪽)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런던 중심가에서 열린 영화 '탑건: 매버릭' 시사회에 참석해 배우 톰 크루즈와 얘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범 재판 받는 러시아 병사



지난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러시아군 병사 바딤 시시미리니 법정에서 있다. 첫 전범 재판을 받는 21세의 이 병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명의 장교로부터 명령을 받아 민간인을 총으로 살해했으며 희생자 부인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